

# 《儒林外史》와 〈狂人日記〉 비교

— ‘봄’과 ‘보여짐’을 중심으로

조홍선\*

---

## ◁ 목 차 ▷

---

- I. 서론-‘봄’과 ‘보여짐’
  - II. 《儒林外史》와 〈狂人日記〉의 ‘봄’과 ‘보여짐’
    - 1. 《儒林外史》의 ‘봄’과 ‘보여짐’
    - 2. 〈狂人日記〉의 ‘봄’과 ‘보여짐’
  - III. ‘봄’과 ‘보여짐’ 그 이후
  - VI. 결론
- 

## I. 서론-‘봄’과 ‘보여짐’<sup>1)</sup>

《儒林外史》와 〈狂人日記〉는 ‘보다’라는 행위의 주체와 그 대상과 관련된 공통점으로 필자에게 연결된다. 두 작품 모두 ‘보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주인공이 타인과 외부세계를 그 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자신이 대상이 되는 순간 새로운 국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보다’라는 행위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이 ‘자아’를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쓰인다. 그에 의하면 자아는 ‘일차적인 자아’와 ‘보여지고 있는 나를 보는 주체’로 분열된다. 이 두 주체는 분리할 수 없이 맞물려 있으며,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eye)이 아니라 보여짐(gaze)이 함께하는 중첩적인 것이라는 것

---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보다’의 피동형은 ‘보이다’이나 ‘보이다’는 ‘see’의 의미와 혼동이 있을까봐 ‘보다’의 피동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보여지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아래 인용하고 있는 〈육망이론〉에서도 ‘보여짐’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다. 라캉이 욕망하는 주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보여짐'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보여지는 존재'이자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들'이다. 세계는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인간은 스스로를 보기만 하는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 착각의 극복을 주장하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진이나 영상 등 '보다'라는 행위와 문학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화 비평계에서는 이를 권력과 연관 짓는다. 즉 근래의 반오리엔탈리즘 비평에서는 '보는 것은 권력의 한 형식이며 보여지는 것은 권력 없음의 한 형식'으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비평의 기초로 삼고 있다.<sup>3)</sup>

《儒林外史》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자의 변화는 분명 작가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투영된 서사기법일 것이며<sup>4)</sup> 그 본질은 볼 수 있는 '보다'와 연관된 권력의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의 현대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趙世熙作)과 중국의 현대 소설 《사람아 아, 사람아!(人啊, 人)》(戴厚英 작) 역시 초점화자가 바뀌나 이 두 작품에서는 章이 바뀌면서 초점화자가 바뀐다. 章을 의미하는 숫자가 초점화자의 변화를 예고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음을 독서과정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儒林外史》의 초점화자는 어떠한 예고나 장치 없이 한 章에서도 중국의 민간예술 검보(臉譜)처럼 수시로 순식간에 이미 바뀌어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현대소설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앞서 시도된 서사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는 것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狂人日記》의 狂人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피해망상증' 환자이다. 이는 이미 자신이 '보다'라는 행위의 주체일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은 과거 중국의 전통과 역사와 주변 인물, 집안사람들, 가족들을 거쳐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救救孩子……"라 외친다. '일차적인 자아'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를 의식하는 주체를 거쳐, '자신을 보는 주체'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이 전체 작품에 전개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서울, 문예출판사, 2009), 32-33쪽 참조.

3) 레이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이산, 2004), 32쪽.

4) 아래에서 '초점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미케 발에 의하면 '초점화는 가장 중요하면서 날카롭고도 미묘한 조자의 수단'이다.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211쪽.

필자가 보기에 《儒林外史》와 <狂人日記>의 연결고리는 각 작품의 저자가 ‘일차적인 자아’와 ‘보여지고 있는 나를 보는 자아’로 분열되어 있는 주체를 의식한 점이다. 즉 각 작품의 주인공은 보는 행위의 주체일 뿐 아니라 자신이 보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새로운 자아 발견 혹은 새로운 각성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이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작가의 선구자적인 면모를 부각시켜보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 II. 《儒林外史》와 <狂人日記>의 ‘봄’과 ‘보여짐’

### 1. 《儒林外史》의 ‘봄’과 ‘보여짐’

《儒林外史》에서는 초점화자의 무한 변화를 통해서 ‘보다’라는 행위로 표출되는 권력관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초점화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점화(焦點化, focalization)를 소개해야할 것 같다. 초점화는 ‘시점(point of view)’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에 의하면 시점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누군가의 눈을 통한 지각이라는 독자적 의미, 둘째 누군가의 세계관을 통한 이데올로기, 개념적 체계, 세계관 등을 의미하는 비유적 의미, 셋째 누군가의 관심-이익으로부터 그의 일반적인 관심사나 이익, 복지 등을 특징짓는 이동적 의미가 그것이다.<sup>5)</sup> 즉 시점은 어떠한 내용으로 그 개념을 밝혀보든 ‘서사적 사건들이 입각하는 물리적인 장소나 이데올로기적인 상황, 또는 실제적인 삶의 지향일 뿐,<sup>6)</sup> 그것을 서술하는 존재가 따로 존재함을 설명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서사이론에서는 서술법(mood)과 음성(voice) 곧 작중 상황을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두 차원으로 분리할 것이 제안되었고, 초점화가 서술법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떠올랐다.<sup>7)</sup> 이를 설명할 때 자주 제시되는 예문을 보자.

5)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서울, 민음사, 1999), 184쪽.

6)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185쪽.

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6), 953쪽.

이사벨은 그가 거기에 창백하고 사색에 잠긴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위의 예문에서 작중 상황을 보는 것은 이사벨이나, 말하는 이는 3인칭의 다른 서술자이다. 이사벨을 시점이라고 부르면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일인칭 시점이나 삼인칭 시점이라는 용어으로는 '누군가의 눈을 통한 지각'만 설명될 뿐, 그것을 서술하는 존재와의 분리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미케 발(Mieke Bal)은 이 초점화의 주체 즉 초점화자(Focalizer)를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초점화자는 성분들이 보여지는 지점이며, 그 지점은 인물(다시 말하면 파블라의 성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인물 내부에 속박된 초점화자를 CF(character-bound Focalizer)라 하고, 파블라의 외부에 위치한 익명의 주체가 초점화자의 기능을 할 경우 외적이고 비인물로 속박된 초점화자 EF(non-character-bound Focalizer)라고 부른다.<sup>8)</sup>

《儒林外史》는 그 첫 대목 즉 설자(楔子)부터 초점화자가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이미 바뀌어 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골라보면 아래와 같다.

- ① 그건 그렇고 원나라 말년에 한 특출한 인물이 태어났다.  
(雖然如此說, 元朝末年, 也曾出了一个嶽崎磊落的人。)
- ② 왕면은 소를 치다 피곤하여 풀밭에 앉아 있었다. 곧 짙은 구름이 밀려들더니 한차례 소낙비가 지나갔다.  
(王冕放牛倦了, 在綠草地上坐着。須臾, 濃雲密布, 一陣大雨過了。)
- ③ 진씨가 그를 맞아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이 사람은 성이 적(翟)씨로서, 제기현의 아전이자 매판(買辦)이기도 했다.  
(秦老迎接叙禮坐下。這人姓翟, 是諸暨縣一个頭役, 又是買辦。)
- ④ 적씨는 가마를 안내해서 왕면의 집 뒤로 돌아 나갔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좁다란 밭둑이 나 있고, 멀리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못가에는 온통 느릅나무,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翟買辦跪在轎前直道: ……)扶着轎子, 過王冕屋後來。屋後橫七豎八几棱窄田埂, 遠遠的一面大塘, 塘邊都栽滿了榆樹、桑樹。)
- ⑤ 지현이 길을 가는데, 멀리서 물소를 비껴 탄 목동 하나가 고갯마루를 돌아 이쪽 편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적씨가 달려 올라가서 물었다.  
(知縣正走着, 遠遠的有个牧童, 倒騎水牯牛, 從山嘴邊轉了過來。翟買辦趕

8) 《서사란 무엇인가》, 189-190쪽을 요약한 것.

將上去, 問道:)

- ⑥ 다음 날 새벽, 왕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고 아침을 먹었다. 마침 진 씨도 찾아왔다.  
(次日五更, 王冕起來收拾行李, 吃了早飯, 恰好秦老也到。)
- ⑦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彈指間, 過了半年光景。)
- ⑧ 어느 날 아침, 왕면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남녀노소가 뒤섞인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那日清早, 才坐在那里, 只見許多男女, 啼啼苦苦, 在街上過。)
- ⑨ 왕면이 언제 하루라도 관직을 지낸 적이 있단가? 그러므로 이렇게 밝혀두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설자(楔子)에 불과하니, 다음부터가 본문(正文)이다.<sup>9)</sup>  
(究竟王冕何曾做過一日官? 所以表白一番。這不過是個楔子, 下面還有正文。)<sup>10)</sup>

①의 초점화자는 파블라 외부에 있는 익명의 인물이므로 EF라 할 수 있다. ②에서는 王冕의 눈을 통해 풍경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초점화자는 CF(王冕)이다. ③을 보면 翟氏에 대한 정보가 秦氏의 지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CF(秦氏)임을 알 수 있다. ④에서 제시되고 있는 집 뒤의 모습은 翟氏의 시각을 통한 것이므로 CF(翟氏)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하 예문들의 초점화자는 ⑤CF(知縣), ⑥CF(王冕), ⑦EF, ⑧CF(王冕), ⑨EF 등으로 부단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점화자를 맡는 인물이 바뀔 뿐 아니라, 초점화자에서 초점화의 대상으로 인물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 역시 바로 이어진다. 이것은 바라보는 '나'에서 보여짐을 당하는 대상으로 인물들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인물이 사라지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객관화를 통한 평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초점화자, 초점화 대상, 초점화자로서의 재출현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초점화자로 재출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물이다.

앞서 예를 든 설자에서 危素와 知縣 時仁은 먼저 다른 세 선비들의 언급을 통해

9) 吳敬梓 지음, 홍상훈 외 옮김, 《儒林外史》(서울, 을유문화사, 2009), 12-30쪽 참조. 이하 《儒林外史》의 본문은 이 번역본에서 인용함.

10) 吳敬梓 《儒林外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5), 1-14쪽. 이하 《儒林外史》의 원문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함.

독자에게 제시된다. 이들에 의하면 危素는 황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학자라서 곧 벼슬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時知縣은 危素의 문하생이다. 이 세 선비들의 언급은 王冕이 초점화자인 상태에서 王冕의 귀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수염 난 사내가 말했다.

“듣자 하니, 예전에 경사를 나설 때 황상께서 친히 성 밖까지 배웅하시면서 손을 잡고 열 걸음도 넘게 걸으셨다 합니다. 위 선생이 재삼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나자 황상께서도 겨우 교자에 올라 돌아가셨답니다. 이런 걸 보면 조만간 그분도 벼슬살이를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sup>11)</sup>

(那胡子說道：“聽見前日出京時，皇上親自送出城外，携着手走了十几步，危老先生再三打躬辭了，方才上轎回去。看這光景，莫不是就要做官?”)(3쪽)

그리고 곧이어 危素와 時仁은 각각 초점화자가 되어 출현했다가, 王冕이 다시 초점화자가 되면 앞서 세 선비들의 서술과는 상반된 부정적인 인물이 되고 만다. 즉 時知縣은 危素의 세력에 기대 백성들을 학대하는 관리가 되고 危素는 그런 時知縣의 배후가 되는 것이다.

지현이 돌아가 버리자, 왕면은 멀리 나간 것이 아닌지라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진씨가 찾아와 그를 책망했다.

“방금 일은 자네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세. 그분은 한 고을의 큰 어른인데 어찌 이토록 함부로 군다는 말인가?”

“……시 지현은 위소의 세력에 기대 이곳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굴며 못하는 것이 없지요. 제가 왜 이런 사람과 친교를 맺는단 말입니까?……”<sup>12)</sup>

(知縣去了。王冕并不曾遠行，即時走了家來。秦老過來抱怨他道：“你方才也太執意了。他是一縣之主，你怎的這樣怠慢他?”王冕道：“……時知縣倚着危素的勢要在這裡酷虐小民，无所不爲。這樣的人，我爲什麼要相与他?”)(9쪽)

第一章에서 보이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儒林外史》 전체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張靜齋는 초점화자로 출현할 때는 範進의 모친상을 도와주는 의인의 형상이나 湯奉이 초점화자가 되면 바로 ‘돈을 뜯으러 온 게 몇 번쨌지, 정말 꼴도 보기

11) 《儒林外史》 15쪽.

12) 《儒林外史》 23쪽.

싫군(屢次來打秋風, 甚是可厭)!하고 湯奉이 혐오하는 인물일 뿐이다(제4회). 이러한 예는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다. 楊執中, 屢氏 兄弟, 權勿用, 馬靜, 胡縝, 杜少卿 등등 자신이 초점화자였을 때와 타인이 초점화자가 되어 자신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점화라는 시각을 각 인물에게 고루 양도함으로써 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儒林外史》에서 초점화자이던 인물이 초점화자의 대상으로 변하는 과정이 한 인물에게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 상황은 바로 라캉에게 연결된다. 위에 언급한 라캉의 개념을 보충해보면 다음과 같다. 라캉은 바라보기만 하는 '나'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나'도 있다는 주체의 객관화 혹은 '타자의식'을 주장한다. 보여짐을 모르는 주체는 대상을 실제로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람은 고착상태에 머물러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외된 신경증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하며, 이 고착에서 벗어나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다시 또 연기된 대상을 향해가는 것, 대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끊임없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복' 없이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바라봄은 보여짐에 분열된다는 것을 모르는 독선적인 주체, 타자를 인정치 않는 고립된 주체는 심한 경우 히틀러처럼 역사를 광기로 몰아넣는 다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인물은 杜少卿이다. 왜냐하면 杜少卿은 작가 吳敬梓를 원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초점화자 혹은 그 대상으로 출현하는 횟수가 그 어느 인물보다 많기 때문이다. 杜少卿이 초점화자로 출현하는 경우는 바라보는 '나'일 것이며, 초점화의 대상인 경우는 보여짐을 당하는 '나'로서 이는 분명 작가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려 보는 평가 과정에 해당 될 것이다.

가장 먼저 杜少卿이 대상화 된 것은 제31회에서이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색을 거친 후 보는 행위의 대상을 자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1회에 작가의 형인 靑然이 그 원형<sup>14)</sup>이라는 杜愼卿은 자신에게 신세를 지려는 鮑廷璽에게 杜少卿을 소개시켜준다.

13) 《육망이론》, 21쪽.

14) 魯迅, 趙寬熙 譯註, 《中國小說史略》(서울, 살림출판사, 1998), 526쪽.

“조급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 …… 그 백부님의 아들은 스물다섯째 항렬에 내 재종형제가 되네. 이름이 의(儀)고 호가 소경(少卿)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두 살 어리고 역시 수재라네. …… 그 녀석은 아둔해서 자기 재산이 10만 냥도 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네. 좋은 은과 나쁜 은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또 전주(錢主)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 ”<sup>15)</sup>

(“莫慌，你听我說。…… 贛州府的儿子是我第二十五个兄弟，他名叫做儀，号叫做少卿，只小得我二歲，也是一个秀才。…… 他是个呆子，自己就象十几万的。紋銀九七，他都不忍得，又最好大老官。…… )”(367쪽)

杜慎卿의 시각으로 소개되는 杜少卿은 세상물정 모르는 아둔한 인물이다. 그러나 위사(韋四)라는 노인이 초점이 되면 杜少卿은 ‘진정한 豪傑’이고<sup>16)</sup>, 하인들이 초점이 되면 하인들의 약까지 직접 챙겨주는 호인이다.<sup>17)</sup> 32회의 내용을 보면 杜少卿은 주변에서 동정심에 호소하면 자신의 전답을 팔아가면서까지 오지랖 넓게 선행을 베푸는 인물이다. 그의 하인마저 함부로 전답을 팔지 말라 권하자, 杜少卿은 “내가 누구한테 허투루 돈을 주는 걸 본적이 있던가?(你看見我自把銀子給那个用的?)”라며 그 권유마저 뿌리치고 만다.

한림원의 고시독(高侍讀)으로 초점화자가 바뀌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다시 앞서 본 杜慎卿의 견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다.

“…… 이 소경이란 자는 두씨 집안에서도 가장 한심한 자요! 그 집안은 조상 수십 대 동안 의술로 너리 음덕을 쌓았고 전답도 엄청나게 모았지요. …… 이 아들놈(杜少卿-인용자)은 더욱 가관이어서 무위도식이나 하면서 중이며 도사, 장인, 거지들은 전부 불러다 어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과는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니가요! 결국 10년도 안 되어 6,7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몽땅 써 버렸지요. …… 그 집안에서 이런 자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자식과 조카들을 가르칠 때 …… 책상마다 ‘천장현의 두의를 본받지 말라’고 써서 붙여 놓았지요.”<sup>18)</sup>

(這少卿是他杜家第一个敗類! 他家祖上几十代行医, 广積陰德, 家里也掙了許多田產。…… 他這儿子就更胡說, 混穿混吃, 和尚、道士、工匠、花子, 都拉着相與, 却不肯相與一个正經人! 不到十年內, 把六七萬銀子弄的精光。…… 不想他家

15) 《儒林外史》, 634쪽.

16) 《儒林外史》, 637쪽.

17) 《儒林外史》, 646쪽.

18) 《儒林外史》, 693-694쪽.



竟出了這樣子弟! 學生在家里, 往常教子侄們讀書……每人讀書的桌子上寫一紙條貼着, 上面寫道:‘不可學天長杜儀!’(403쪽)

36회에 나오는 虞博士와 伊昭의 대화에서 보이는 극도로 상반된 평가는 작가가 자신을 얼마나 냉철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맞습니다만, 그 사람이 본래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남경으로 도망 와서 거짓말로 사람들 돈이나 뜯어먹고 산다는 걸 남경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행실도 형편없지요!”

“무슨 일로 행실이 나쁘다는 건가?”

“그자는 늘 아내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비웃지요.”

“그게 바로 그 양반의 풍류와 고상함을 보여 주는 것이네. 그걸 속된 사람들이 어찌 알겠나?”<sup>19)</sup>

(“門生也不好說。南京人都知道他本來是個有錢的人, 而今弄窮了, 在南京躲着, 專好扯謊騙錢。他最沒有品行!” 虞博士道: “他有什么沒品行?” 伊昭道: “他時常同乃卷上酒館吃酒, 所以人都笑他。” 虞博士道: “這正是他風流文雅處, 俗人怎么得知!”)(432쪽)

위의 대화를 보면 杜少卿에 대한 평가가 초점화자에 따라 극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동석했던 儲信이 杜少卿의 詩文의 수준에 대해 의심하자 虞育德은 그의 시문에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두둔한다.

杜少卿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를 보면 작가 吳敬梓가 보는 ‘나’와 보임을 당하는 ‘나’ 사이를 오가는 ‘봄/보여짐’을 되풀이 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南京으로 이주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49회의 평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가 4.5년 전에 펴낸 《詩說》이란 책을 펴낸 것에 대해 遲均이 내린 평가 — “제가 보기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에만 전념하고 공명을 구하지 말며, 공명을 구하는 사람은 공명에만 신경 쓰고 학문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려 한다면 결국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sup>20)</sup> — 는 저자가 자신에 대한

19) 《儒林外史》, 741-742쪽.

평가를 내린 후 얻은 인생관이라 할 것이다.

## 2. 〈狂人日記〉의 ‘봄’과 ‘보여짐’

‘봄’과 ‘보여짐’이라는 이항대립모식으로 〈狂人日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이미 몇 편이 있었다. 그 중 먼저 눈에 띄는 것은 李珠魯의 〈魯迅의 〈狂人日記〉- ‘폭력’과 ‘미침’, 그 ‘감춤’과 ‘드러냄’의 미학적 보고〉이다.<sup>21)</sup> 李珠魯는 이 논문에서 푸코의 판옵티콘(Panopticon) 이론을 응용하여 ‘바라봄’과 ‘보여짐’이라는 이항대립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타자, 그리고 ‘바라봄’과 ‘보여짐’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는 차이로 인해서 반성적 사유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나’는 ‘바라봄’과 ‘보여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조건에 대한 앎을 획득한다고 분석했다.

成玉禮는 錢理群의 ‘봄’과 ‘보여짐’이라는 이항대립모식과 王富仁의 분석을 결합하여 〈狂人日記〉를 正視와 顯示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sup>22)</sup> 錢理群은 ‘바라봄’과 ‘보여짐’을 전체 魯迅의 작품의 인물관계를 분석하는 틀로 제시한 바 있다.<sup>23)</sup> 간단히 살펴보면, 이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독특한 개인(선구자)’과 ‘평범한 대중 중 한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물론 보는 행위의 주체는 ‘독특한 개인’이며 보는 행위의 대상 즉 보이는 대상은 ‘평범한 대중 중 한 사람’이다. 전자에는 廣人, 夏兪, N선생, 미치광이, 大禹 등이 있고 후자에는 孔乙己, 單四嫂子, 阿Q, 祥林嫂 등이 있다. ‘봄/보여짐’의 모식이 적용된 다른 예는 “독특한 개인”(봄)과 “평범한 대중”(보여짐) 사이의 관계이며 이는 선구자와 군중, 계몽가와 계몽 대상, 의사와 환자, 희생자와 수혜자 의 관계로 그려진다.<sup>24)</sup> 앞서 반오리엔탈리즘 이론의 기본으로 제시되었던 권력관계로 해석됨직한 분석이라 할 것이다.

20) “……依小弟看來：講學問的只講學問，不必問功名；講功名的只講功名，不必問學問。若是兩樣都要講，弄到後來，一樣也做不成。”(574쪽)

21) 《東亞文化》 제34집(1996년)에 발표.

22) 成玉禮 〈〈狂人日記〉를 통해 본 魯迅의 소설 인식〉 《中國語文論叢》 제 20집 참조.

23) 〈創造新形式的先鋒-魯迅小說論〉 《走進當代的魯迅》(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3-9쪽 참조.

24) 〈創造新形式的先鋒-魯迅小說論〉 《走進當代的魯迅》(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3-9쪽 참조.

한편, 王富仁은 <狂人日記>를 표층구조와 의미구조로 분리해서 해석하고 광인의 의미를 실제 미치광이와 반전통문화계의 정신적 전사라는 쌍관관계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狂人日記>의 의미구조는 광인의 인식 심화 과정으로 해석했는데, 그에 의하면 광인의 인식은 '외부인이 사람을 먹다 → 집안사람이 사람을 먹다 → 전체 사회가 사람을 먹다'로 확산되고 '현실사회가 사람을 먹다 → 중국 역사가 사람을 먹다 → 전체문화 전통이 사람을 먹다'로 다시 심화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것이다.<sup>25)</sup>

成玉禮는 정시와 현시라는 개념을 <狂人日記>에 오롯이 집중시키고 있다. 광인의 정시 대상이 외부세계에서 자신으로 옮겨감에 따라 인식이 심화되었고, 자아부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 두 논문에서 '바라봄'과 '보여짐', 정시와 현시로 분석한 과정은 본고와 일정부분 일치한다.

위 두 논문을 참조하여 <狂人日記>를 '봄'과 '보여짐'이라는 대립구조로 살펴보자. 먼저 광인이 최초로 발병 혹은 각성하는 계기로 해석되는 제1장에서 광인은 봄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오늘 밤은 달빛이 무척 곱다.

내가 달을 보지 못한지도 이미 삼십 여 년이 지났다. 오늘 달을 보니 정신이 유독 상쾌해진다. 지난 삼십 여 년이 온통 혼미한 상태였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나 무척 조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씨 집안의 그 개가 어찌 나를 그리 보았겠는가?

(今天晚上, 很好的月光。

我不見他, 已是三十多年; 今天見了, 精神分外爽快。才知道以前的三十多年, 全是發昏; 然而須十分小心。不然, 那趙家的狗, 何以看我兩眼呢?)<sup>26)</sup>

지난 삼십 여년에 대한 각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된 광인이 본 달의 새로운 모습과, 광인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개를 통해 먼저 보여줌으로써 광인은 봄의 주체였다가 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봄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25) <<狂人日記>細讀>; 《王富仁自選集》(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159-160쪽 참조. 이 글은 한국의 《中國現代文學研究》1992년 제6호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26) <狂人日記>; 《魯迅全集》 제1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422쪽. 이하 인용문에는 인용문에 바로 쪽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은 주위 사람들이 광인을 보는 행위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광인을 통해 제시된다.

아침에 조심스레 집을 나서는데 趙氏 어른의 눈빛이 이상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길에서 만난 7-8명의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내가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早上小心出門, 趙貴翁的眼色便怪: 似乎怕我, 似乎想害我。還有七八個人, 交頭接耳的議論我, 又怕我看見。一路上的人, 都是如此。)(423)

앞에 있던 애들 역시 나에 대해 뭐라 말하고 있었다. 눈빛이 趙氏 어른과 똑 같았고 안색도 모두 거무튀튀했다.

(前面一伙小孩子, 也在那里議論我: 眼色也都鐵青。)(423)

제일 이상한 것은 어제 길에 있던 그 여자다. 자기 아들을 때리면서 입으로는 “네 이놈, 너를 콧 물어뜯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하면서도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

(最奇怪的是昨天街上的那個女人, 打他兒子, 嘴裏說道, “老子呀! 我要咬你幾口才出氣!” 他眼睛却看着我。)(424)

나를 집에 끌어다 놓고 집안사람들은 모두 나를 모른 체 했다. 게다가 그들의 눈빛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拖我回家, 家裏的人都裝做不認識我; 他們的眼色, 也全同別人一樣。)(424)

내가 끼어들려 하자 소작인과 형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도 외부 사람들과 똑 같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我插了一句嘴, 佃戶和大哥便都看我幾眼。今天才曉得他們的眼光, 全同外面的那伙人一模一樣。)(424)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광인이 보는 대상은 주변 사람들에서 집안사람들, 자신의 형에게로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실에 대한 인식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광인은 이 과정에서 타인들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봄의 대

상이 됨을 충분히 의식하고 분석하고 있다. 광인을 피해망상증 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타자의식'이 있는 정상인으로 볼 것인지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타자의식'의 과도함이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광인이 정상인으로 그것도 각성한 정상인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타자의식이야말로 王富仁이 <狂人日記>를 쌍관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광인의 시선은 역사로 향한다.

무릇 모든 일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을 항상 먹어왔다는 건 나도 기억하기는 한데 분명치는 않았다. 역사서를 떠들어보니 역사서에 연대는 없고 페이지 마다 “仁義道德”이라는 글자가 삐뚤삐뚤 씌어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아서 밤새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제야 글자 사이에서 다른 글자가 보였다. 책마다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한 것이었다!

(凡是須得研究，才會明白。古來時常吃人，我也還記得，可是不甚清楚。我翻開歷史一查，這歷史沒有年代，歪歪斜斜的每葉上都寫着“仁義道德”幾個字。我橫豎睡不着，仔細看了半夜，才從字縫看出字來，滿本都寫着兩個字是“吃人”!) (425)

중국의 과거 역사가 식인의 역사였음을, 식인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자행되어온 것임을 역사서를 봄으로써 발견해내는 것으로 광인의 인식이 심화(혹은 병세의 악화-王富仁의 쌍관구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시선이 가족 내부로 집중되면서 여동생의 죽음에 관한 기억이 떠오른다.

여동생은 형이 잡아먹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다.

어머니도 아셨을 것 같다. 그러나 곡을 하실 때는 설명이 없었다. 아마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셨으리라.

(妹子是被大哥吃了，母親知道沒有，我可不得而知。

母親想也知道；不過哭的時候，却並沒有說明，大約也以爲應當的了。)(431)

가족 내부에서도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마저 이를 묵인했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자 광인은 자신을 보여짐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천여 년 간 사람을 먹어온 곳에서 오늘에야 알았다. 나 역시 그 속에서 수년을 살았음을 말이다. 형이 집안일을 보고 있었으니 여동생이 죽자 음식에 넣어서 몰래 내게 먹이지 않았으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내가 무의식중에 내 여동생의 살점을 먹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 같다. 이젠 내 차례가 되었구나, ……

(四千年來時時吃人的地方，今天才明白，我也在其中混了多年；大哥正管着家務，妹子恰恰死了，他未必不和飯菜裏，暗暗給我們吃。

我未必無意之中，不吃了我妹子的幾片肉，現在也輪到我自己，…… ) (432)

위는 광인이 자신을 봄/보여짐의 주체와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인식의 최고조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광인 혹은 전사가 자신마저 가해자였음을, 전통 봉건 문화의 식인 풍조에 일조하던 동조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이는 광인이 앓고 있던 피해망상증이 낫는 순간 혹은 반전통문화 전사가 처절한 절망에 빠지는 순간으로 동시에 해석된다.<sup>27)</sup>

### Ⅲ. ‘봄’과 ‘보여짐’ 그 이후

본고에서 말하는 ‘봄’과 ‘보여짐’ 이후란, 《儒林外史》와 《狂人日記》에서 주인공들이 ‘봄’과 ‘보여짐’의 대상이 된 이후를 말한다. ‘봄’과 ‘보여짐’의 대상 혹은 주체가 타인이나 주변인물, 역사 등에서 주인공으로 바뀌었을 때 두 작품은 새로운 전환을 보인다. 이는 라캉 이론의 미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그것은 ‘他者意識’으로서, 이는 ‘주체를 대상에 대한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오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sup>28)</sup> 이에 따라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타인들에게서 찾아보려는 행위로 연결된다.

먼저 《儒林外史》를 보면 楔子와 마지막 章이라 할 수 있는 제55회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작가는 설자에서 元代の 벼슬에는 관심 없이 초야에 묻혀 살면서

27) 《狂人日記細讀》: 《王富仁自選集》, 165쪽.

28) 권택영 편, 《육망이론·해설》, 20-21쪽 참조.

부귀공명을 피했던 王冕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한 후, 明代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유림으로부터 凡人, 武人, 女人 등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인격을 물색하고 제시한다. 작가가 설자의 王冕과 대응할 만한 인물로 제시한 것이 제55회에 출현한 네 기인이다. 그 중 먼저 글씨에 능한 季遐年(季遐年)의 말을 들어보라.

“네껏 것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주제넘게 감히 나더러 와서 글씨를 쓰라는 거냐! 난 네놈 돈도 탐나지 않고, 네 권세도 부럽지 않고, 네놈 덕을 볼 생각은 요만큼도 없거늘, 감히 글씨를 쓰라고 나를 불러 대!”<sup>29)</sup>

(“你是何等之人, 敢來叫我寫字! 我又不貪你的錢, 又不慕你的勢, 又不借你的光, 你敢叫我寫起字來!”) (632)

재봉사 荊元(荊元)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다.

“남의 부귀영화를 탐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으니, 이만하면 즐거운 삶이 아니겠나?”<sup>30)</sup>

(“又不貪圖人的富貴, 又不伺候人的顏色, 天不收, 地不管, 倒不快活?”) (638)

이를 보면 《儒林外史》의 전체 주제가 앞서 杜少卿에게 내려졌던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가가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은 부귀공명을 초월한, 속인들은 알 수 없는 풍류와 고상함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이는 王冕과 杜少卿, 吳敬梓가 꿈꾸던 이상이라 할 것이다. 부귀영화, 공명에 전혀 뜻을 두지 않고, 타인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그 무엇에도 구애 받지 않는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영위한 인물들을 작품의 시작과 말미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狂人日記>의 광인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사천년간 사람을 잡아먹은 이력이 생겨버린 나, 애초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진정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걸 말이다!

29) 《儒林外史》, 1069쪽.

30) 《儒林外史》, 1077쪽.

十三

사람을 잡아먹어 보지 않은 아이가 있지 않을까?  
아이를 구하라.....  
(有了四千年吃人履歷的我, 當初雖然不知道, 現在明白, 難見眞的人!

十三

沒有吃過人的孩子, 或者還有?  
救救孩子 …… ) (432)

마지막 “아이를 구하라.....”라는 외침은 분명 魯迅이 《吶喊》·自序에서 “적막 가운데를 돌진하는 용사로 하여금 그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도록 다소의 위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는 외침이다.<sup>31)</sup> 그러나 역시 “나의 외침 소리가 씩씩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밋살스런 것인지, 괴상한 것인지, 그런 것은 돌이켜 볼 겨를이 없다”고도 했던 그러한 외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는 이 외침의 성격을 규명할 여유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람’, ‘사람을 잡아먹어 보지 않은 아이’라는 광인 자신이 아닌 새로운 대상이다. 《儒林外史》에서 저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럽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탐색을 계속한 끝에 4대 기인에게서 이상형을 찾아 제시하듯, 《狂人日記》의 狂人 역시 자신의 정체체를 확인한 후 타인에게서 이 세상을 구할 주체 혹은 자신의 이상형을 찾으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캉 철학의 미덕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두 작품의 작가에게서 선구자적인 풍모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魯迅이야 물론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임을 그 누구도 모를 리 없겠지만, 《儒林外史》의 서사기법에 주의하면 그 작가 吳敬梓에게서도 그 서사기법을 가능케 했던, 오인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아를 인식한 선구자적인 면모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31) 《魯迅全集》제1권, 419쪽. 王富仁은 이 외침을 “사상 역정의 종결이자 정신반역자의 ‘임종유언’”으로 해석했다. 앞의 책 166쪽.



## VI. 결론

‘허구외적 목소리’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작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허구외적 자료의 대부분은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조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구외적 목소리는 역사의 존재론적 지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습적으로 궁극적인 텍스트의 권위로서 작용한다.”<sup>32)</sup> 이는 또한 웨인 부우드의 ‘내포작가’와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이야기 그 자체 내에서의 서술존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소설세계라는 존재 그 자체, 인물, 그들의 이름과 개성, 플롯의 조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텍스트의 타이틀, 텍스트의 장르, 목적, 방식에 관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통하여,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통하여” 텍스트적 기대를 독자에게 안겨주는 서사 장치 중 하나다.<sup>33)</sup>

허구외적 목소리에 주목하면 ‘제목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제목이 무엇을 전면으로 내세우는지, 작가적 입장에 대해 무엇을 지적하는지’ 등이 점점 대상이 된다. 《儒林外史》와 <狂人日記>라는 제목에 주목하면 본고의 의도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儒林外史》는 일반적으로 제36회 泰伯祠에서의 제사가 절정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 55회 중 37회 이후 55회까지를 절정 이후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작가가 인물과 사건의 양을 정하지 않은 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어디에서든지 끝나거나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儒林外史》의 구조는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평도 있다.’<sup>34)</sup> 36회 이후 유독 유림 이외의 인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儒林外史》의 서사 기교에 주목하면 위 두 가지 평가는 뒤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필자는 초점화자의 변화라는 서사 기교를 통해 보다(看)라는 권력을 술한 유림 이외의 인물들 즉 무사, 상인, 기녀, 광대 등에게 동등하게

32) 수잔 스나이더 랜서(Susan Snaider Lanser),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서울, 좋은날, 1998), 133쪽.

33) 《시점의 시학》, 128-129쪽.

34) 蔣瑞藻, 《小說考證續編拾遺》, 上海, 商務印書館, 1922, 61쪽. Shuen-fu Lin, <Ritual and Narrative Structure in *Ju-lin Wai-shih*>, 《Chinese Narrative: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244쪽에서 재인용.

양도한 저작의 의도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본다. 즉 《儒林外史》는 36회 이후에도 작품의 긴장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그 구조 역시 이상적인 인격의 탐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儒林外史》라는 제목의 간섭을 피해서 작품을 《儒林/外史》가 아니라 《儒林外/史》로 봐야하지는 않을까. 필자는 吳敬梓의 원래 의도가 설사 《儒林/外史》였다 할지라도 창작 과정에서 작중의 술한 인물들에게 동등하게 봄(看)의 권력을 양도한 결과 유럽 이외의 인물들에게서 이상형을 발견하게 된 《儒林外/史》로 읽히는 것이다.

〈狂人日記〉에서 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아이를 구하라……’라고 외치는 것으로 〈狂人日記〉의 본문은 끝난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狂人日記〉의 서문에 나와 있다.

그대가 수고롭게 먼 길을 돌아 병문안 와주었네만 이미 나아서 모지에 후보가 되어 갔네.

(勞君遠到而來視，然已早愈，赴某地候補矣。)(422)

‘모지에 후보가 되어 갔다’는 구절은 특히 광인과 魯迅 사이의 커다란 장벽으로 해석되어 왔다. 물론 ‘내포된 작가’ 혹은 ‘허구외적 목소리’ 등의 서사학적 개념으로 작가와 작중 주인공의 동일시를 경계하기도 하지만 ‘후보가 되어 갔다’는 것을 현실에 타협·투항한 결과로 해석하면서 평생을 ‘반봉건 전사’로 살았던 魯迅과 명백한 선을 긋는 것이다. 王富仁의 아래 설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반봉건 전사였다면 병이 나은 후 당연히 더욱더 분명하게 반봉건 투쟁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魯迅은 그가 “모지에 후보가 되어 갔네”라고 분명히 썼다. 관료가 되려 갔다는 것은 그가 병이 나기 전에 이성적인 반봉건 전사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如若他是一個反封建戰士，他病愈後理所當然地會更清醒地投入反封建鬥爭，但魯迅明明說他已“赴某地候補矣”，去做官僚了，這說明他病前便不是有理智的反封建戰士。)<sup>35)</sup>

그러나 魯迅이 일본 유학 시절 잡지 《新生》창간을 준비하다 실패한 후 자신에 대해 깨달은 아래의 각성을 상기해보면 광인의 깨달음이 바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나를 반성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즉 나는 팔을 들어 한 번 외치면 호응하는 자가 구름 같이 모여드는 그런 영웅은 아니었던 것이다.

(因爲這經驗使我反省，看見自己了：就是我決不是一个振臂一呼應者云集的英雄。)<sup>35)</sup>

즉 광인과 魯迅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 '내포된 작가', '허구외적 목소리'를 감안하더라도 위의 王富仁의 해석만큼 멀지는 않은 것이다. <狂人日記>라는 제목에, 작가의 가장 직접적인 개입에, 작가의 훗날의 명성에 그간 우리가 너무 휘둘린 건 아닐까.<sup>37)</sup>

다른 한편 '전사'라는 개념 역시 魯迅과 광인의 거리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어 왔다. '전사'에 담겨 있는 강렬한 어감 때문에 '관료'가 되어 갔다'라는 표현에서 광인이 반봉건 혁명의 길을 포기했다고 해석을 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혁명'이라는 용어에 주목한다면 이 역시 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李澤厚와 劉再復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康有爲와 梁啓超의 시야가 매우 넓었고 孫文보다 중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sup>38)</sup> 혁명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프랑스혁명과 자코뱅당을 찬양해 왔습니다. 혁명을 뭔가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혁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적

35) 王富仁, 《<狂人日記>細讀》, 앞의 책 152.

36) 《吶喊》·自序: 《魯迅全集》 제1권, 417쪽.

37) 이와 관련해 魯迅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유중하의 논문 <魯迅과 김수영>(《중국현대문학》 제9집, 1995)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라는 세 가지 魯迅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들이 중국현대문학계와 일본의 중국문학연구계에 있어왔다. 그러나 魯迅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길항 관계에 있는 모순된 복합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어느 하나의 정체성이 魯迅의 절대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본고와 결부지어 보면 魯迅과 광인의 관계 역시 훨씬 유연하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8) 李澤厚, 劉再復 김태성 역, 《고별혁명》 북로드(서울, 2003), 134쪽.

어도 절반은 성스럽고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왔지요. 하지만 이제 혁명의 잔인함과 추악함 그리고 더러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sup>39)</sup>

과거에 우리는 혁명을 지나치게 맹신하면서 혁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태평 천국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혁명이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창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은 건설을 대신할 수 없고 건설은 혁명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이지요.<sup>40)</sup>

두 사람은 혁명을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는 '잔인하고 추악한 것'이며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중국이 당했던 굴욕으로 인해 생겨난' '광기'와 '소아병'이라 해석한다.<sup>41)</sup> 이어서 개량에 대해 '혁명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내와 기백 그리고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鲁迅과 광인 사이에 그어졌던 한계선은 분명 혁명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에 대해 이들처럼 그 이면을 볼 수 있었다면 鲁迅과 광인 사이에 그토록 건널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鲁迅이 평생 반봉건 혁명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것을 '전사'의 수준, 혁명가의 수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량파의 수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鲁迅과 광인의 거리를 기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吳敬梓, 홍상훈 외 옮김, 《유림외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9.  
 《魯迅全集》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  
 吳敬梓, 《儒林外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5.  
 魯迅 趙寬熙 역, 《中國小說史略》, 서울, 살림, 1998.  
 수잔 스나이더 랜서(Susan Snaider Lanser),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서울, 좋은 날, 1998.

39) 위의 책, 137쪽.

40) 위의 책, 139쪽.

41) 위의 책, 146쪽.

-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서울 민음사, 1999.
- 王平,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 李澤厚, 劉再復, 김태성 역, 《고별혁명》, 서울, 북로드, 2003.
- 레이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 서울, 이산, 2004.
-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유증하, 〈魯迅과 김수영〉; 《중국현대문학》 제9집, 1995.
- 李珠魯, 〈魯迅의 〈狂人日記〉 — ‘폭력’과 ‘미침’, 그 ‘감춤’과 ‘드러냄’의 미학적 보고〉; 《東亞文化》 제34집, 1996.
- 連心達, 〈歐美《儒林外史》結構研究評價〉; 《明清小說研究》, 1997年 第1期.
- 王富仁, 〈〈狂人日記〉細讀〉; 《王富仁自選集》,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 錢理群, 〈創造新形式的先鋒-魯迅小說論〉; 《走進當代的魯迅》,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成玉禮, 〈〈狂人日記〉를 통해 본 魯迅의 소설 인식〉; 《中國語文論叢》 제20집, 2001.
- Shuen-fu Lin, 〈Ritual and Narrative Structure in *Ju-lin Wai-shih*〉, 《Chinese Narrative: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喬根, 〈《儒林外史》敘事結構新〉; 《黃山學院學報》, 2008年 第6期.

### 【中文提要】

“看”的行爲意味着把他人對象化的權力。《儒林外史》和〈狂人日記〉的共同点在于，不僅把“看”的行爲的主体作爲他人，而且還把自己作爲他人看的“對象”。這意味着孕育在“看”的行爲里的權力從話者分散到他人。這種權力的分散在《儒林外史》中通過焦點話者的變化來體現，在〈狂人日記〉中通過描繪話者感覺到的他人的視線來體現。

這表示兩部作品的話者由于發現他們生來擁有雅克·拉康所說的“誤認的結構”而有了“他者意識”。這‘他者意識’讓對自身有了准确認識的兩部作品的話者或者從他人身上尋找理想的人格(《儒林外史》)，或者把希望寄托在未來的孩子身上(〈狂人日記〉)。

**【主題語】**

《儒林外史》, 〈狂人日記〉, 吳敬梓, 魯迅, 자크 라캉, 오인의 구조, 왜곡된 집착

투고일: 2012. 10. 15 / 심사일: 2012.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2. 11. 10